성실 • 경건 • 신념

"대진중원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12호 2016년 12월 15일(목)/계간

발행인 · 안병환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2면 Campus News
중국캠퍼스 JUCC 현판식 개최
중국 절강월수외국어대학 총장 본교 방문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예비대학' 운영 협약 체결
괴산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3면 Campus News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업무협약 체결
중원항공과 함께 하는 비행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장관 '희망' 주제로 특강
김두년 교학 부총장, 한표환 대외협력 부총장 약력

4면 총장동정

5면 Students News
충북창조경제지원재단 뷰티헬스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2016년도 졸업작품 전시회 LASTART' 열어
"제11회 국제무예대회" '펜칵실랏' 부문 다수 입상
제4회 충북 솔라기능경기대회 우수 성적 달성

6면 Students News
간호학과 학생해외연수 시행
중원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
우리대학 장애인 인식 개선 확산에 앞장

7면 Special –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유선종 교수님'
세계 최고의 항공정비 마이스터를 꿈꾸는 항공정비학과!
항공운항학과 비교과 부사나사 프로그램 실시

8면 · 9면 JWU in 人
중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들
항공운항학과 박희재 학우
베트남으로 봉사 떠나는 최태민 학우

10면 JWU in life
혼밥남녀

11면 JWU in life
예비군, 이것만은 알고 가시지 말입니다!

12면 JWU in life
기숙사 탐구생활

13면 JWU in life
이 말만은 참아주세요!

14면 Global JWU
이방인 토크 with fulbright

15면 Global JWU
잉글리시 카페, 이리콤!
원어민 Kathleen 그녀를 알고 싶다

16면 Career
국내 기업 취업에 성공한 외국인 유학생 아츄
취업 뭣이중헌디?

17면 Culture
조모임하다 화나서 알려주는 Google Tip

18면 Culture
괴산愛카페
어여쁜 우리말

19면 JWU Festival
스웨거 슈퍼비&면도
중원에 떴다!

20면 JWU Festival

중국캠퍼스 JUCC 현판식 개최

우리대학이 9월 9일 중국 북경연합대학에서 중국 캠퍼스 JUCC (Jungwon University China Campus)현판식을 개최하였다.

JUCC 프로그램은 중국 북경연합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중원대학교 재학생이 중국 북경연합대학에서 제공하는 중국어기초, 중급, 심화 과정을 학생 수준별로 수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 및 중국어학 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학생은 전공과목도 학점 이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북경연합대학교 노진양 총장은 인사말에서 "해외대학에서 본교에 캠퍼스를 설치한 학교는 중원대학교가 처음이다. 해마다 100여 명 정도의 교환학생이 전공 및 중국어, 중국문화를 공부하게 될 예정으로 일류의 교수진과 편한 환경을 마련하여 교환학생들이 중국어, 중국문화, 중국민속 등을 배우고 습득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안병환 총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양교가 더욱 밀접한 교류를 통하여 학술교류는 물론 인적교류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세계의 모범이 되는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앞으로 JUCC 현판식을 시작으로 중원대와 북경연합대가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중국 북경연합대학(北京联合大学, Beijing Union University)은 1958년 설립된 종합대학으로 총 14개의 캠퍼스가 베이징시내 6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재학생이 총 3만 명이며 유학생 1,500명, 성인학습자 4,000명이 수학하고 있다. 전임교수는 약 1,600명이고 약 18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편집부〉



▲안병환 총장과 노진양 총장(북경연합대 총장, 오른쪽)이 현판식을 갖고 중원대 북경캠퍼스의 시작을 알렸다.

중국 절강월수외국어대학 총장 본교 방문



▲안병환 총장(가운데 왼쪽)과 서진화 총장(가운데 오른쪽)이 본교를 방문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중국 절강월수외국어대학이 우리대학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양교 간의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절강월수외국어대학의 서진화 총장을 비롯하여 요란지 외사처 처장, 왕종걸 동방언어학원 원장, 조유평 동방언어학원 한국어학과 교학실 주임이 방문하였다.

중원대와 절강월수외국어대학간 협력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외실습 파견 등 실무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방문한 절강월수외국어대학 일행은 3일부터 5일까지 머물며 세부적인 협력 방안 논의를 하였다.

안병환 총장은 "우리대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교류 활동을 통해 절강월수외국어대학과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절강월수외국어대학 서진화 총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원대학교와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중원대와 협력하여 상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중원대 법인 사업체인 동해샘물, 실버타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절강월수외국어대학은 중국 절강성 소흥에 위치해 있고 절강성에 하나 밖에 없는 외국어 대학일 뿐 아니라 한국어학과에는 전 세계 약 400여 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또한 교내에 '한국의 집'을 운영하여 동·서양의 문화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편집부〉

중원대-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예비대학' 운영 협약 체결

우리대학이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 예비대학'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안병환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경기도 예비대학'이란 경기도 교육청 소속 고등학생이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특별 개설한 강좌를 희망 선택에 의해 수강하고, 자기 주도적 진로 개척 및 학습 역량을 신장하는 학생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어서 감사하며, '경기도 예비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재정(왼쪽) 교육감과 안병환(오른쪽) 총장이 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은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편집부〉

괴산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괴산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을 맞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이 지난 9월 12일 E-Hall에서 지역 어린이들의 위생·영양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두년 부총장, 안정좌 센터장, 괴산군수 권한대행 김창현 부군수, 김영배 괴산군의회의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유치원, 어린이집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원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과 급식소의 규모와 유형에 맞는 표준 레시피와 지역아동센터 등 연령에 따라 눈높이에 맞는 정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해 식습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안정좌 센터장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 이라며 "어린이 보육시설 급식의 위생·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개발, 운영함으로써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원대학교는 지역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한편 중원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괴산군의 지원으로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22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위생 지도와 급식 컨설팅, 교육자료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병국기자 kbk0777@jwu.ac.kr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업무협약 체결

(MAFF)



▲캄보디아 농림부산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ean Vanhan 차관보(왼쪽에서 다섯 번째).

우리대학이 9월 27일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와 상호 협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교무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중원대학교 총장과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차관보(Hean Vanhan)를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중원대학교는 학부 및 대학원 내 학위 및 비학위 교육과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개발 운영, 인적 교류 증진의 공동 참여를 약속하였다.

또한, 중원대 산학협력단 소속 RIS사업단(Regional Innovation System, 괴산 유기가공식품산업육성사업단), 국제농업협동조합개발센터의 협약도 각각 추가 체결한 이후에 충북유기농업연구소, ICOOP 생협 식품가공단지, 진미식품, 친환경 농자재 공장을 견학하였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차관보(Hean Vanhan)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캄보디아 농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우호 협력 관계 증진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안병환 총장은 "우리 중원대학교가 캄보디아 농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상호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장관 '희망' 주제로 특강

우리대학이 지난 10월 5일 성평등교육전문가포럼에서 주관한 '2016년 여성 리더스 포럼' 강연을 개최하였다.

'2016년 여성 리더스 포럼'은 충청북도의 미래 리더로 성장할 대학생들의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해 마련한 전문가포럼으로 뛰어난 멘토들을 초청하여 충북 도내 대학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이번 특강은 맹형규(전 행정안전부 장관, 현 사단법인 공공나눔 이사장) 이사장이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희망과 기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맹형규 이사장은 본인이 언론, 국회, 정부에서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젊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전달하였다.

강연 이후에는 학생들과 주제 없이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대화도 이어졌다.

이지연 인재양성지원센터장(의료공학과 교수)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맹형규 이사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맹형규 이사장은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따라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이 강연이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공공나눔'은 공공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원봉사 형태로 재능기부하는 퇴직한 공직자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비영리 봉사 단체이다. 〈편집부〉



▲맹형규 이사장이 '2016년 여성 리더스 포럼'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중원항공과 함께 하는 비행

항공서비스학과 실습실 개소식 가져



▲안병환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항공서비스학과 실습실 개소식을 맞아 컷팅식을 진행 하고 있다.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새로 생긴 기내 모형실습실(mock-up)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리대학 항공서비스학과가 11월 23일 총장님을 비롯한 교무위원 및 교수,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습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기념사, 컷팅식, 항공기내서비스 체험, 학생들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항공서비스학과는 23일~24일 이틀 동안 실습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누구나 탑승체험을 통해 비행기 안에서의 모든 과정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중원대 항공서비스학과 실습실은 비행기 티켓팅부터 착륙까지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완비되었으며, 바리스타와 와인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장비와 실습실도 겸비되었다.

김연주(항공서비스학과 1)학생은 "실습실이 생긴 것이 기쁘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성장하는 저희 항공서비스학과를 보면 더욱더 열심히 해서 꼭 승무원이 되어 배운 것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연숙 학과장은 "신설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실습교육 여건이 조성되어 학생들의 학습효과와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학교는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 항공서비스, 항공재료공학과 등 항공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충북지역 항공부분 특성화대학으로 비상하고 있다. 〈편집부〉

인사

김두년 교학 부총장



주요경력

- 중원대학교 법무법학과 교수
- 중국정법대학 방문학자
- 중원대학교대학원장(역임),법무법학과교수
- 한중대학교 총장, 행정학과 교수
- 농협중앙회 조사부 금융연구실장

주요활동

- 2013.11.20.~2016. 현재 (사)남북경협포럼 감사
- 2008.11.20.~2016. 현재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2013.09.01.~2016.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운영자문위원
- 2013.06.01.~2016.05.31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 2010.02.01.~2016.01.31 통일부(17기,18,19기) 통일교육위원
- 2007.07.01.~2009.06.3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3기) 자문위원

한표환 대회협력 부총장



주요경력

-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미국 City of Irvine 도시계획가
- 육군제3사관학교 교수부 전임강사
- 한국행정학회 상임이사

주요활동

- 2014.07~2016. 현재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2014.01~2016. 현재 행정자치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2013.11~2015.10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위원장
- 2013.11~2015.12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2011.04~2013.03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 2009.10~2010.09 국무총리실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위원

PHOTO NEWS



▲ 지난 10월 29일 중국 월수외국어대학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포럼에 안병환 총장이 참석하여 연설을 하고있다.



▲ 지난 9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충북지역 총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10월 19일 박재진 경찰청장의 예방을 받고 양 기간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안병환 총장이 11월 14일, 중원대를 방문한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소 농화지가(农禾之家) 양튜안 소장을 접견하고 향후 양기관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안병환 총장이 10월 5일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맹형규 전 장관의 이번 방문은 '2016 여성 리더스포럼' 강연을 위하여 이루어 졌다.



▲ 안병환 총장이 지난 11월 2일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의 예방을 받고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안병환 총장이 지난 11월 30일 김선미 라폼므 현대미술관장의 예방을 받고 미술관에서 주관하는 3초 관심기부 공공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11월 14일 '2017희망나눔 캠페인'에 안병환 총장이 모금함에 성금을 넣고 있다.



▶안병환 총장이 10월 25일 본교 장애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저녁식사도 함께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학업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했다.

충북창조경제지원재단 뷰티헬스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우리대학 뷰티헬스학과가 지난 31일 E-Hall에서 충북창조경제지원재단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중원대학교 총장, LG생활건강 충북창조경제지원재단 사무총장, 장학생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충북창조경제지원재단은 LG생활건강이 지난 2월 설립하여 충북지역 화장품 및 뷰티 관련 학과 대학생 중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중원대는 뷰티헬스학과에서 추천한 후보 중 충북창조경제지원재단에서 심사 후 선발된 10명에게 각 1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충북창조경제지원재단 한종섭 사무총장은 "충청북도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원대학교 뷰티헬스학과를 통해 인재 발굴 및 육성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생들은 향후 LG생활건강 채용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채용행사에 우대 해택이 제공된다.

안병환 총장은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해 준 충북창조경제지원재단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뷰티헬스학과 학생들이 장학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종섭 사무총장(왼쪽에서 네 번째)

'2016년도 졸업작품 전시회 LASTART' 열어

우리대학 산업디자인과가 지난 10월 12일~18일까지 6일간 인사동 희수 갤러리에서 2016학년도 졸업 작품 전시회 'LASTART'를 열었다. 전시회에는 산업디자인학과 학과장 이아람 교수를 비롯한 내외빈과 재학생 및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전시회 개최를 축하해주는 자리가 되었다.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들이 LASTART 졸업전시회의 개막식을 알리며 컷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시회는 교수소개, 졸업준비 위원회 소개와 다과회 등 개막식을 시작으로 캐릭터와 상업제품을 다룬, 예비 졸업생들의 개성을 살린 브랜드 컨텐츠를 관람하는 순서로 구성되었다.

신민지 학생은 "이번 졸업전시회는 4년 동안 예술적 소질을 다듬어 성장한 우리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 발걸음"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학업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의 발판으로 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업디자인과 학과장 이아람 교수는 "오늘을 위해 밤새 쉼 없이 노력하며 작업해준 4학년 학생들의 수고가 많았다"면서 "졸업 후에도 중원대학교의 학생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LASTART'는 'LAST', 'START', 'ART' 단어들의 합성어로, 그동안의 성장 그리고 좌절과 실패를 견뎌내고 4년이라는 시간을 기쁨과 행복으로 마무리 한다는 뜻이다.

한편 산업디자인학과는 2014년부터 지역사회를 위해 벽화그리기 재능을 기부해 지역의 콘크리트 벽을 그림이 있는 아름다운 담장으로 꾸미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송예지 기자 lilysong@jwu.ac.kr

"제11회 국제무예대회" '펜칵실랏' 부문 다수 입상



▲경호학과학생들과 박영만 교수(오른쪽 맨 끝)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리대학 경호학과가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 이충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국제무예대회 "제1회 대한민국 펜칵실랏 국제 오픈 챔피언십"대회에서 다수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대회에서 중원대 경호학과 권민찬, 이기혁(경호학과 2), 이창교, 조순기(경호학과 1)가 은메달을 박동진(경호학과 2), 심재승(경호학과 1)이 동메달을 따냈으며, 조순기 학생은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였다.

대학부위원장인 경호학과 박영만 교수는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는 오는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세계챔피언십대회를 준비하는 전초전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싱가폴,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 등 9개 나라가 참가하였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대회이기도 하여 뜻깊은 대회로 찬사를 받았다.

박영만 교수(경호학과, 대한펜칵실랏연맹 대학위원장)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펜칵실랏의 위상과 지원이 많아지리라 생각하며, 열악한 환경이지만 선수들과 함께 오는 12월에 있을 세계챔피언십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펜칵실랏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타 운동종목에 비해 지원과 관심은 적지만 현재 중원대 경호학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팀은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팀이라 할 수 있다. 〈편집부〉

제4회 충북 솔라기능경기대회 우수 성적 달성



▲신재생학과 학생들과 이홍찬 교수(신재생에너지학과, 가운데) 솔라기능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이 10월 13일~14일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북테크노파크(충북 솔라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 '제4회 충청북도 솔라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 대회에서 태양광발전 시공(대학부)에 출전한 강형준(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3), 강병수(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2) 학생팀이 은상의 영예를 안아 80만원의 상금을 류경호, 유재성(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3)학생팀은 동상을 차지하여 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태양광모듈 설계제작(대학부)에 출전한 소지현, 도영빈(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3), 홍건화(항공재료공학과 3)학생팀은 은상을 수상하여 80만원의 상금을, 김민기, 문준호, 장창희(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2)학생팀 동상, 이정우, 한주희, 주현미(항공재료공학과 3학년)학생팀은 동상을 수상하여 각각 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강형준 학생은 "작년에는 장려상을 받아 올해는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이홍찬 교수님의 지도아래 더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쉽게 은상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좋은 기회였고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홍찬 교수(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는 "우리 학생들이 대외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기쁘게 생각한다. 내년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찬 교수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이시종 충북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편집부〉

간호학과 학생해외연수 시행



▲간호학과 학생들이 참관 수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 간호학과가 지난 7월 11일~22일 까지 미서부지역 5개 의료기관 및 1개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가졌다.

간호학과 해외 연수팀은 미남가주 한인 간호사회 회장 및 현지 간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 취업과 지속적인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요양시설 방문을 통해 목욕간호에 직접 참여하여 활력징후, 혈당검사, 인슐린 주사 등의 간호활동을 참관했다.

또한 노인들의 인지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노인들과 함께 참여하여 도움을 주었고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Sierra University와의 MOU를 체결하고 학생과 교수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간호학과 하은호 교수는 "17명의 학생이 참여한 1차 해외연수 프로그램(1st Challenges to Global Health and Nursing)을 통해 중원대학교를 널리 알리고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첨단화된 해외 의료 및 질 높은 간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불어 충청북도 괴산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중원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 "최순실 게이트 진실 밝혀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의식 느껴야한다-



▲총학생회가 본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중원대학교 총학생회는 11월 10일 오후 학교 본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적인 감정에 휩쓸린 정치를 했다"며 "최순실 게이트의 횡포와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주장했다.

이어 "진실을 소수의 책임으로 지우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해결책과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 앞에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표 학생회장은 "국민들의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며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총학생회는 지난 1일 시국선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주일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 사태에 관한 학생들의 자유 의견을 수렴한 뒤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였다고 말을 전했다.

한편 지난 2일 '대통령 퇴진 촉구 선언문'을 발표한 청주대를 비롯해 충북대·한국교원대·서원대·충청대·교통대 등 5개 대학은 3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김병국 기자 kbk0777@jwu.ac.kr

우리대학 장애인 인식 개선 확산에 앞장

우리대학이 2016년도 2학기에 장애인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8월에는 괴산군 수화통역센터의 이광열 수화통역사를 초빙하여 '청각장애 및 수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중원대 교직원 120여 명에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다.

10월 가을축제 기간 동안 중원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보조기구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고, 중원대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최로 취업특강도 시행하였다.

김규원 학생(사회복지학과 1학년, 지체장애)은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해 주신 장애학생지원센터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5일에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병환 총장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서 문지혜 학생(의료공학과 4, 청각장애)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어 생활비 걱정을 덜었다. 학교에서 우리 장애학생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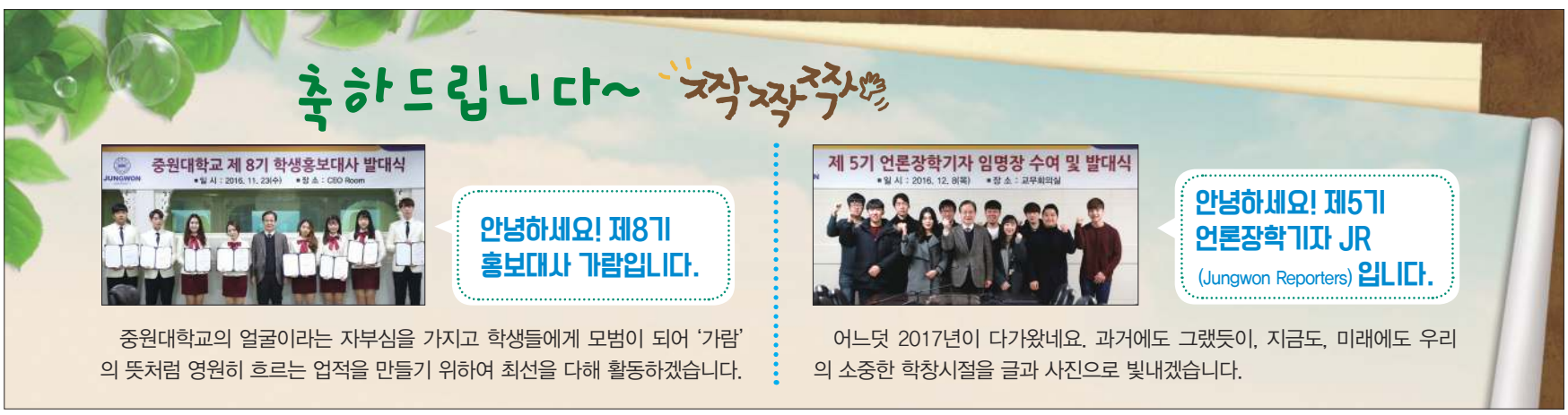
손세일 학생(골프과학과 4, 청각장애)은 "청각장애가 심하여 이론수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한국복지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속기사 선생님을 지원해주어서 이론수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괴산지역 장애인들이 본교를 방문하여 골프 수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철수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여러 행사들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장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행사를 마련하여 장애학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병환 총장은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늘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복도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환한 표정의 인사가 인상깊었다.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건의를 하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편집부〉



묵직한 걸음으로 중원의 하늘을 그리다

– 항공운항학과 '유선종 교수님' –



Q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중원대학교에 오기 전, 저는 제주항공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학양성에 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여, 근무하던 제주항공을 그만두고 일류대학을 만들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중원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Q 우리학교 항공운항학과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은 매년 10% 내외의 급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6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발맞추어 국내 항공의 일류대학으로의 꿈을 가지고 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설립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다른 학교 항공운항학과에 비해 우리 학교 항공운항학과만의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와 타 대학과의 차별성은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전 교육과정이 실무와 직접 연계 된 항공전문교육과정의 교과과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비행시간입니다.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 타 대학의 2배에 가까운 250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장합니다.

셋째,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모의비행실습과정 체험입니다. 이 과정은 항공사에서 조종사들이 실제 비행하는 전 과정과 더 나아가 이론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1기 박희재 학생이 공군조종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는 영광을 가진 바 있습니다.

Q 항공운항학과가 개설된 지 3년이 되었는데요. 항공운항학과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교수님으로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항공학도로서의 길을 걷는 학생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비행에 관심이 많아 시뮬레이터 조작과 실제 비행을 경험한 학생과 난생 처음 비행하는 학생 등 많은 개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실습을 마치고 이와 별도로 부족한 학생들에게 저녁에 따로 과외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던 학생들도 중간 평가 단계에서 그 모든 과정을 거뜬히 소화하고 있었고, 이것이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왔으며 학생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Q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항공기란 앞선 사람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정신이 만든 인류의 쾌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고 주도하는 항공운송사업의 핵심인 조종사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중원대학교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는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취업은 날로 경쟁률이 높아가고 있어 대학의 선택이 취업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 학생을 단지 조종사로 양성하는 것이 아닌, 대학생활을 통해 진정으로 인정받는 항공 및 조종 전문가를 양성하여 특성화된 분야에서 최고의 교육과 연구를 하는 학과로 발전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 항공분야를 이끌 인재가 되고 싶다면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를 지원할 것을 추천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중원대학교를 대표하는 항공대학의 항공운항학과 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의 비전과 꿈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언제나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항공전문가로서 필요한 영어 역량과 품성과 도덕 함양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최재순 기자 cjsoon93@jwu.ac.kr

세계 최고의 항공정비 마이스터를 꿈꾸는 항공정비학과!

– RC 비행기 모형 제작기





▲항공정비학과 학생들이 RC 비행기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쌀쌀한 가을하늘, 그 아래 작은 비행기가 날아간다. 바로 항공정비학과 학생들이 만든 RC(Radio Control)비행기 모형이다. 제2의 라이트 형제를 꿈꾸는 그들은 직접 기체를 디자인하고 엔진과 프로펠러까지 구해 비행시험을 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고 비행기는 높은 가을 하늘을 수놓았다. 항공정비학과 1학년 학생들의 패기와 열정을 담은 비행기는 오늘도 힘차게 날아오른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항공운항학과 비교과 부사나사 프로그램 실시

항공운항학과가 지난 10월 31일 '공군조종 장학생' 시험대비 학습 전략을 알려주기 위해 시행되는 비교과 '부사나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항공운항학과 정영진 교수의 주최로 공군조종 장학생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약 2달간 1차 시험대비 학습전략과 학과 시험대비, 2차 시험인 면접시험 준비까지 온&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사나사 프로그램은 부모사랑 나라사랑을 축약한 뜻으로, 비교과 수업 F영역으로 인정되며 매주 월요일에는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수요일은 온라인수업이 진행된다.

이날 개최식에서는 1차 시험대비 학습전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학년 공군조종 장학생 합격생 박희재학생의 경험담 발표와 모의평가가 진행되었다. **송예지 기자 ilysong@jwu.ac.kr**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JWU in 人

중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들

2016년을 마무리하며 올 한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며 중원대학교의 이름을 떨친 영광의 얼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10월 최초로 국내에서 열린 '제1회 펜칵실랏 국제오픈 챔피언십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경호학과 펜칵실랏팀입니다.

펜칵실랏이라는 종목이 생소하시죠? 펜칵실랏이란 인도네시아 전통무술로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의 액션 무술로 유명합니다. 작년부터 펜칵실랏을 준비하면서 매 대회마다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이번엔 국내에서 열린 대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입상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비주류 종목이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펜칵실랏의 위상과 지원이 많아지리라 생각하며,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오는 12월에 있을 세계챔피언쉽대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저희 펜칵실랏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강병수, 강형준
솔라워스 대회 입상

안녕하세요 신재생 강병수(왼쪽), 강형준(오른쪽)입니다. 저희는 충북 솔라기능 경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처음에 대회에 참가 신청 했을 때에는 실무경험이 없어서 걱정했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교수님의 지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실수한 부분이 있어 아쉽긴 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 만족합니다.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홍찬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고 직접 부딪히며 많은 경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주시현
대학축구 U리그 1권역
최다 득점상

안녕하세요. 축구부 4학년 주시현입니다. 이번 대학축구 U리그 1권역에서 득점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쉽게도 팀은 2위로 리그를 마쳤지만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테니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은 저희 축구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포터즈 활동을 해주신다면 학생들의 관심과 응원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축구부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문준호 /ACCS 국제학술대회 입상

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학과 문준호입니다. 지난 11월 5일 ACCS 국제학술대회에서 'Green Leaders Activities of Jungwon University' 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총 3개국의 교수, 연구원 그리고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서의 발표는 처음이었고 더군다나 영어로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긴장됐지만 교내에서의 수많은 발표경험 덕분에 문제없이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준비를 하였고 그 노력에 따른 좋은 결과를 얻어서 매우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1년부터 교내·외에서 환경보호실천 운동을 하고 있는 녹색동아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대학교
JUNGWON UNIVERSITY

글로벌한 스펙,
인성으로 완성하는 중원대학교가
궁금하다면?
중원대학교 SNS 바로가기

중원대 공식 SNS
블로그 페이스북 언론장학기자 홍보대사 가람



중원원로담론 4집 출간!!

중원원로담론은 중원대학교 출판부에서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는 도서로 이번 4집은 '우리시대인성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간하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지내신 윤형섭 장관을 비롯하여, 전 교육인적자원부 이돈희 장관, 전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 등 사계 권위자들이 집필한 도서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교내 서점과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 책의 판매 수익 전액은 중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됩니다.
문의 ☎ 043-830-8074

블랙이글스 조종사를 꿈꾸다~

항공운항학과 박희재 학우



국군의 날 TV방송으로 비행기가 하늘에서 멋진 곡예를 하는 것을 누구나 한번은 봤을 것이다. 여기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꿈을 펼친 사람이 있다. 우리대학에서 최초로 공군 조종 장학생으로 선발된 항공운항학과 박희재 학생을 만나 자신의 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지원계기는 무엇인가요?

지원하게 된 계기는 난생처음 공군 에어쇼를 보고나서 였습니다.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하고 공군조종사와 민간항공기조종사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 "공군과 함께하는 2014 경기항공전, 블랙이글 에어쇼"를 보고 '나도 공군이 되어서 저기서 멋진 비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공군 장학생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 1차 시험에서 한국사, 영어, 간부선발도구 3과목을 합산하여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게 되고 2차 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을 거치게 됩니다. 3차에서는 누적된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1차 시험 문제는 독해, 자료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은데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고등학교와 재수 시절(웃음^^) 공부했던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군 조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가요?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 최대 고민인 취업과 등록금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졸업 후 공군장교로 임관하여 공군 전투기 조종사 비행 훈련을 통과하면 공군 조종사로 최소 13년 동안 군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발됨과 동시에 공군에서 남은 학기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이 나옵니다. 공군에 대한 뜻이 있어 계속 진급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군 생활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계속 공군과 나라에 봉사하며 후배들을 양성하고 조국수호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민간 항공기 조종사에 꿈이 있다면 여타 다른 경력을 가진 조종사보다도 큰 이점을 갖고 대형 항공사의 조종사로 전향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교육을 받으며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나요?

처음 떨리는 마음으로 기체의 시동을 켜고 *요크를 꽉 잡은 채로 활주로를 지나 서서히 지상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륙한 후 지상에서 바라보던 에어쇼의 T-50 기체와 함께 비행하고 있는 제 자신이, 과거 에어쇼를 보며 '조종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던 다짐에 한발 다가섰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요크를 잡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첫째. 우리 항공운항학과 교수님들께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줍니다. 따라서, 후배님들이 교수님들의 의도와 방향을 잘 이해하고 따라주길 바랍니다.

둘째, 직접 선배들의 경험과 조언을 구해 학업 및 운항실무에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1학년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장치와 타 대학보다 빠른 비행실습이라는 이점으로 타 대학보다 훨씬 요크를 잡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비행 연습을 해두길 바랍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학과특성상 비행실습을 하러 가는 2학년 2학기는 사실상 마지막 대학생활이므로 공부는 확실히 하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기를 바랍니다.

*요크–비행 조종대

김병국 기자 kbk0777@jwu.ac.kr

스무 살의 아름다운 첫 비행!

베트남으로 봉사 떠나는 최태민 학우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승무원을 꿈꾸는 항공서비스학과 16학번 최태민 입니다.

이번 해외 봉사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월드프렌즈 PAS'라는 해외 봉사단으로 베트남 호찌민 대학과 연계해서 12. 17 ~ 1. 16일 까지 약 한 달간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대학교 학생들과 팀을 이뤄서 초·중학생들에게 한국어, 한국 문화, K-pop, 전통무용 부채춤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팀에서 심혈을 기울인 치어리더 댄스도 알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와이스의 'Cheer up'은 반드시 전수해 주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고등학교 때 한 주에 한 번씩 물리 동아리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1년 동안 해 왔는데 대학교에 와서는 해외 아이들한테도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는데... 해외봉사는 처음이라 약간 긴장도 되고 떨리네요.

봉사활동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처음 봉사를 하면서 봉사시간을 채운다는 의미로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막상 봉사를 하니까 어느새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모습에 미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뿌듯하고 제 작은 도움이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활동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없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사람들을 통해 배워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려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면 봉사활동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봉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모르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도 있고 열정이 많은 사람을 보고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 대의 사람들과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봉사라도 참여해 본다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봉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하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제12호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혼밥남녀



학업에 치이고 인간관계에 치이는 당신 이제 '혼밥'하라! 더 이상 '혼밥'은 외로움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 여유 있는 식사시간을 즐기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쉴 틈 없이 바쁜 여러분의 여유로운 식사를 위해 JR이 직접 먹어보고 평가한 괴산 內 '혼밥' 추천 식당 및 편의점 추천 메뉴를 소개합니다!! (개인적인 별점 평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편의점 혼밥 도시락



별점 ★★★★★

1. CU 백종원 한판 도시락 (3,500원)

과연! '집밥 백선생' 다운 도시락입니다. 오랜만에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해주실법한 떡갈비와 불고기, 큼지막한 달걀말이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쥬~~? 믿고 먹는 백종원 음식이죠. 집밥 생각날 때면 주저 말고 이 도시락을 찾으시라!

주머니가 넉넉할 땐 우삼겹 도시락(4,300원)을 추천합니다.



별점 ★★★★

2. GS 25 진수성찬 도시락 (3,500원)

'혜자스럽다', 바로 이 도시락에서 파생된 신조어랍니다. 명성에 걸맞게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반찬까지 감히 '진수성찬'이라는 이름을 내세울 만합니다. 비슷한 도시락으로 조금 더 저렴한 6찬 도시락이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반면 반찬 가짓수가 진수성찬 도시락보다는 조금 적은 것이 아쉽습니다.



별점 ★★★★

3. CU 순대국밥 (3,800원)

편의점 도시락이 이렇게까지 진화할 줄은 빌게이츠도 몰랐을 겁니다.^^ 순대국밥을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오다니.... 편의점에서 파는 순대국밥이라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큼지막한 순대와 머릿고기, 다진 양념에 들깨가루까지! 점점 추워지는 겨울 편의점에서 국밥 한 그릇은 어떨까요?

괴산內 혼밥 식당



별점 ★★★★★

1. 카페테리아 치즈 크림 리조또 (5,500원)

아무래도 가까운 식당이 최고죠? 우리학교 카페테리아 최고의 메뉴라 할 수 있는 '치즈 크림 리조또'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주며 꾸덕꾸덕한 리조또 위에 넘치는 치즈의 조화는 가히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느끼한 음식이 당기는 날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자매품으로는 '치즈 미트 리조또'가 있습니다.



별점 ★★★★½

2. 마포갈매기 마포갈매기 (150g 7,900원)

혼밥의 끝판왕. 혼자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기인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창피해하지 마세요. 아무도 당신에게 관심 없습니다. 어느 누가 불판 위의 고기를 두고 다른 테이블을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고기를 영접합시다. 불판을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달걀마저 아름다워 보일 테니까요.



별점 ★★★★

3. 미소야 수제돈카츠샐러드 (9,000원)

혼밥하는 사람에게 미소야는 아주 좋은 식당입니다. 혼자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보고 싶은 날엔 딱이죠! 미소야의 주메뉴는 돈카츠입니다. 그 중 수제돈카츠 샐러드는 돈카츠의 느끼함을 상큼함으로 잡아주는 조화로움이 예술입니다. 돈카츠의 무거운 느낌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꼭 한 번 드셔보길 바래요.

예비군, 조기퇴소!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은 알고 가시지 말입니다!



9월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가을? 개강? 아니죠! 9월은 바로 중원대학교 학생예비군의 달입니다! 저도 9월에는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요. 학생예비군의 달을 맞아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두 분, 강필순 대대장님과 윤지훈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강필순 대대장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ROTC 24기로 86년도에 임관, 학교는 영남대학교를 나왔고, 군 생활을 30년간 한 뒤, 올 2월에 제대를 하고 왔습니다.

Q. 올해 2월이면 전역하신지 얼마 안 되었네요?

그렇죠. 7월 1일부로 여기 왔으니까요. 여기 중원대학교 예비군대대가 7월 1일부로 국방부에 인가받아 창설되었으니까요. 이번에 9월부터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예비군훈련을 받습니다.

Q. 이곳에서 대대장님께서는 어떤 사무를 맡고 계신지요?

학생 예비군들 자원관리와 교육훈련 맡고 있습니다.

Q. 중원대 예비군대대의 일반 예비군대대와 다른 특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원래는 집 주변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중원대 예비군대대가 생김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편하게 훈련 받을 수가 있습니다.

Q. 제가 이번에 예비군을 처음 가게 됩니다. 저처럼 처음 가는 친구들을 위한 조언 있을까요?

열심히 훈련에 참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비군훈련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방적인 주입식에서 지금은 자유롭게 임무 완수를 하면 조기퇴소도 시켜줍니다. 지난번에는 160명 중에서 40명, 그러니까 4개 분대가 조기퇴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팀워크라고 할 수 있지요.

Q. 그러면 입소 전에 분대를 미리 맞추고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지요! 가서 10명씩 끊으니까요. 팀이 잘 되려면 일단 지휘자를 잘 뽑아야 해요. 그렇지만 10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하려고 해야지 분대장이 혼자만 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팀워크가 중요해요.

Q.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훈련받다가 다치면 학업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훈련받는 8시간만큼은 개인적인 행동보다 지시에 잘 따라서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아 그리고 복장은 잘 갖추고 가야 합니다. 복장 검사를 하니까요.

Q. 학교 오시니까 어떤가요?

일단 자유분방하고 내가 보아왔던 대학교중에 가장 깨끗하고 골프장이 있다 보니 시야도 확 트여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도 특이하고 한 건물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이건 개인적인건데 식당 밥이 맛있더라고요. (웃음) 군대 다녀오셨으니 아시겠죠? 뭘 먹어도 군대 밥보다 다 맛있죠! 그래서 요즘 살찔까 봐 조심하고 있어요. 먹는 것을 조절해야 하는데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웃음) 그래서 요즘 살찔까 봐 조심하고 있어요. 먹는 것을 조절해야 하는데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웃음)

최재순 기자
cjsoon93@jwu.ac.kr


▲윤지훈 선생님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22살에 육군 3사단 학교에서 임관 후 군대를 가서 37살에 전역했어요. 2월에 전역하고 국방부 공고를 보고 중원대학교에 지원해서 3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었어요.

Q. 학교 와보시니까 어떤가요?

아 군대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죠!(웃음) 군대생활 해보셨겠지만, 일도 많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군인이라서 전국을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정들만하면 떠나고 하다 보니 친구도 없는데 학교는 동료들도 있고 하니 즐겁죠. 그리고 학생들이 있으니 분위기가 밝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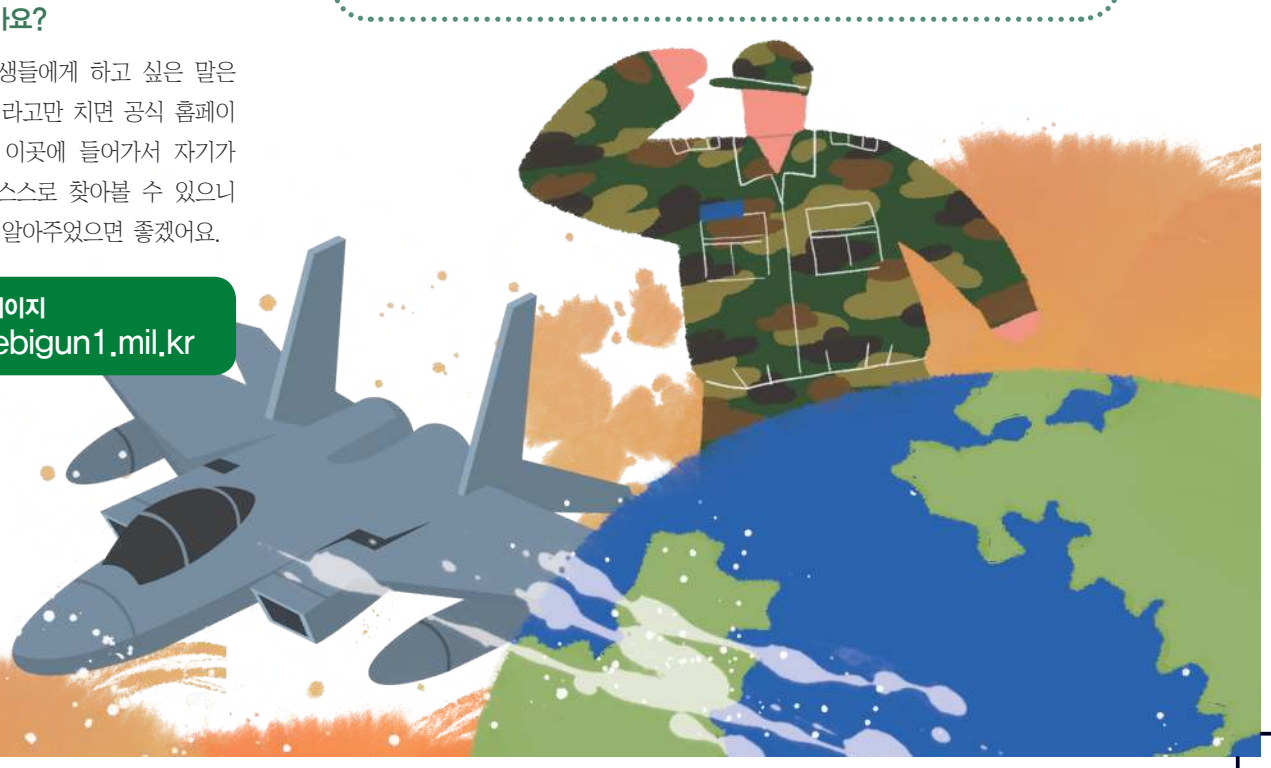
Q.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 예비군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터넷에 예비군이라고만 치면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져요. 이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으니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 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Tip

첫째, 훈련을 위한 팀을 맞추기 위해 처음 입소 시 줄을 잘 설 것.
둘째, 팀의 지휘자(분대장)를 잘 뽑아야 한다.
셋째, 혼자만 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넷째, 복장을 잘 갖추고 가야 한다.



제12호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기숙사 탐구생활

고등학교 기숙사를 지내본 사람들은 격공(격하게 공감) 하실 겁니다. 대학교 기숙사 생활과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은 아주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시죠? 아침부터 잠들기 직전 그들의 기숙사 생활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함께 추억에 젖어 보도록 합시다.

아침 기상편

고등학교 기숙사





'일어나 학교가야지!' 누군가는 엄마가 되어 아직까지 자는 친구들을 깨우기 바쁩니다. 친구를 깨워주는 여유까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여야하기에 항상 같이 일어나 하루를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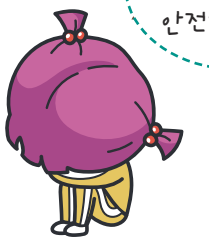
대학교 기숙사





자유로운 시간표 때문에 가장 나중에 수업이 있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의 알람 소리와 헤어드라이기 소리에 아침을 맞이합니다.

점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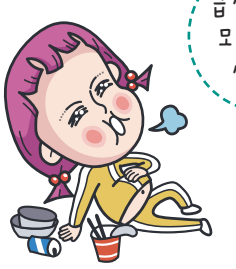
아침 일찍 일어나 비슷한 시간을 보낸 친구들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이불 안으로 들어갑니다. 외부에 나갈 일이 별로 없는 점호시간에 99% 기숙사 안에 있답니다.





자유로운 영혼인 이들은 각종 약속으로 학교 밖을 나오며, 점호시간만 되면 모두들 기숙사 앞에서 달리기 시합을 한답니다.

식사편





이때 만큼은 한 없이 기쁜 시간이죠! 하지만 맛없는 식단이 나오면 가끔씩 매점에서 빵을 사먹거나 어쩔 수 없이 급식을 먹어야 하죠ㅠㅠ





'오늘 학식 뭐야?'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입니다. 맛없는 식단이라면 카페테리아로! 가볍게 먹고 싶다면 컵밥으로! 다양한 먹거리로 선택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건 행복한 고민!

시험기간편





시험기간에 한마음 한뜻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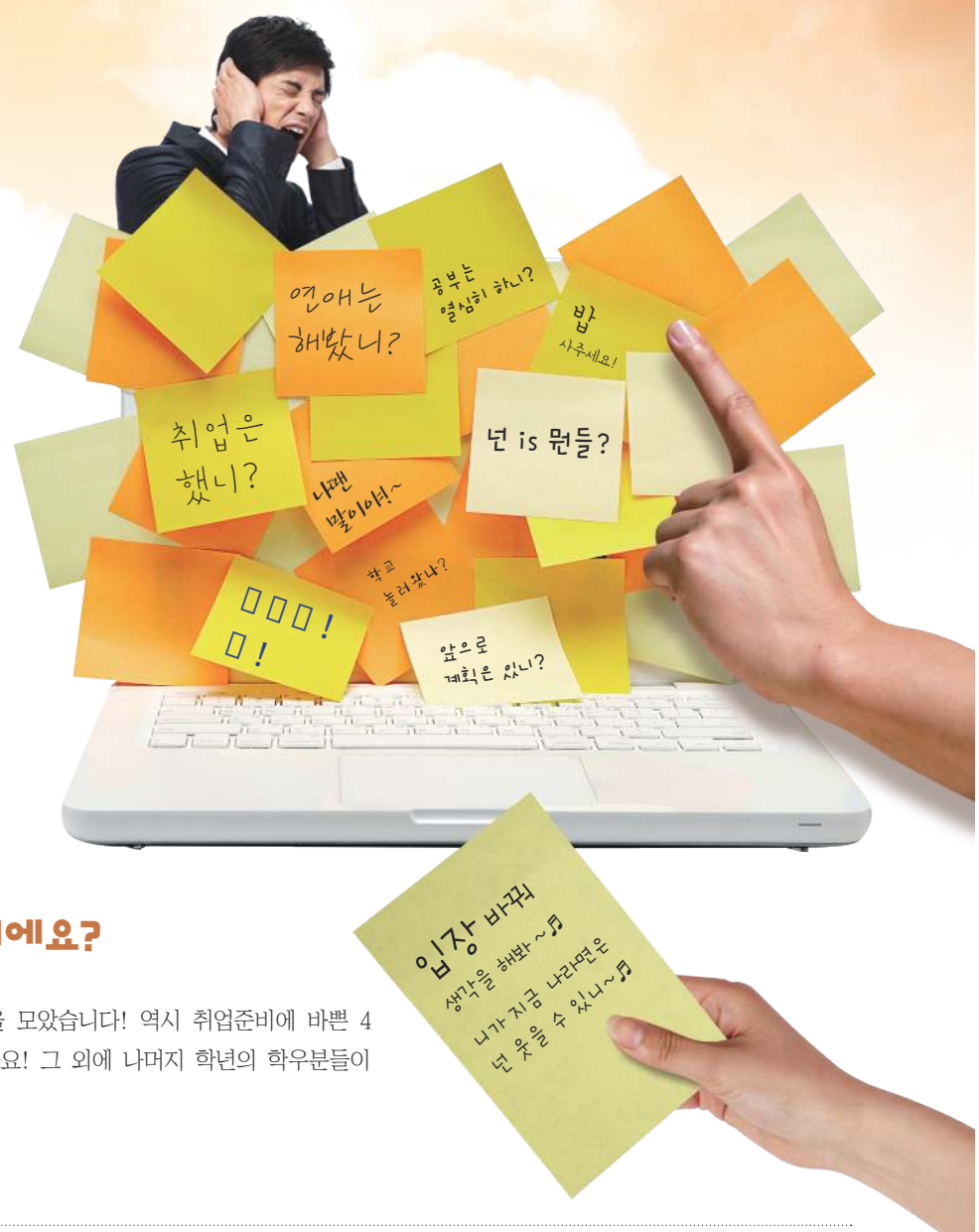


시험기간에 놀포자(놀기를 포기한 자), 시포자(시험을 포기한 자) 두 종류로 나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기숙사 생활 차이점에 다들 공감하셨나요? 여러분은 시험기간에 어떤 유형이신가요?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생 시절 자신의 모습을 현재와 비교해 보면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함께 지냈던 친구들한테 연락 한 통씩 하시는 건 어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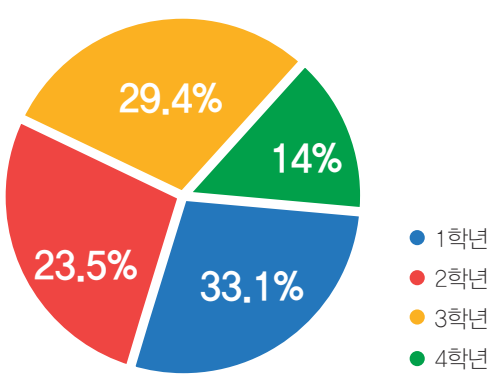
JR – 김병국 기자 kbk0777@jwu.ac.kr/송예지 기자 lilysong@jwu.ac.kr

이 말만은 참아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친구에게, 후배에게, 선배에게...
우리는 별 뜻 없이 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조사해보았습니다! 중원대 학우들의 듣기 싫은 말말말! 이 말만은 피해서 합시다!
제발! 이 말만은 참아주세요!
(본 기사는 중원대학교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재순 기자 cjsoon93@jw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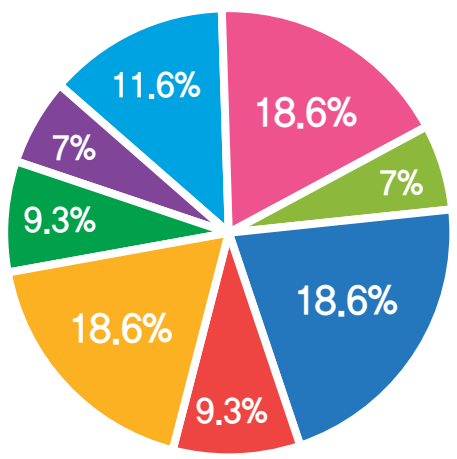
첫 번째 몇 학년이에요?

중원대학교 학우 136명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역시 취업준비에 바쁜 4학년 선배님들이 가장 숫자가 적군요! 그 외에 나머지 학년의 학우분들이 고르게 설문에 응하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가요?

전체적으로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공동 1위로 가장 많이 나온 세 가지 질문은 '너 살 많이 쪘다. (외모 이야기)', '누구는 취업했다던데, 너는 준비 잘 되어가니?', '앞으로 계획은 있어?' 이렇게 세 개가 뽑혔습니다. 역시 대부분 20대에 예비 취업 준비생인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외모와 취업 이야기가 특히 민감합니다. 취업 관련 질문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란히 1위에 입성하였습니다.

- 누구는 취업했던데, 너는 준비 잘 되어 가니?
- 방학인데 아무것도 안 해?
- 앞으로 계획은 있어?
- 공부는 잘 하고 있고?
- 여자(남자)친구 있어? (이성친구 이야기)
- 대학교 어디 다녀?
- 너 살 많이 쪘다. (외모 이야기)
- 기타



세 번째 교수님께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가요?

3위로 취직에 대한 교수님의 잔소리가 올랐습니다. 취직에 대한 학우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로는 '과제 있다~' 가 올랐습니다. 빠지지 않는 말이죠. 저도 과제 정말 싫어하는데요. 역시 교수님의 '과제 있다~'가 학우들이 듣기 싫어하는 두 번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위로는 시험! 시험이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역시 학생의 적은 시험!' 아니겠습니까.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네 번째 선배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가요?

3위로 부심 부리는 선배가 올랐습니다. '내가 너 만할 땐 말이야.', '어디 선배 말하는데..' 선배님들! 후배들이 싫어합니다.

2위로는 '인사 좀 해라!'가 올랐습니다. 후배님들! 밝은 인사성은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1위로는! 두둥~~ '행사 참여 좀 해라'가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학회장과 과대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것 잘 아시죠?

다섯 번째 후배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가요?

3위로는 '선배님~ 밥 사주세요!'가 올랐습니다. 선배님도 학생인데 너무 자주 그러면 부담스럽습니다!

2위로는 '예의 없는 말'이 올랐습니다. 친한 것은 좋지만 예의는 꼭 지켜주세요!

1위로는 '누구세요?'가 올랐습니다. 네. 복학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후배님들~ 같은 과 선배들 얼굴은 알아주세요!

마지막

자, 이렇게 재미삼아 알아본 중원대 학우들의 듣기 싫은 말말말! 혹시 뜨끔하지는 않으셨나요? 다가오는 2017년에는 서로에게 어여쁜 말만 사용해 보아요!

제12호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이방인 TALK with fulbright

지난여름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생 95명이 우리학교에 찾아 왔습니다. 이중에 한국에 남다른 사연이 있는 두 명의 외국인 풀브라이트 장학생을 만나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과 중원대는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제도는 지난 1946년 미국의 풀브라이트 상원 의원의 제안에 따라 만든 장학금 프로그램. 전 세계 각지의 우수한 학생들이 공부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에 오게 하거나 미국 학부 졸업생들이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ameron과의 대화

(cameron 이하 "cam")
Minnesota주 Saint Olaf 대학교 중국어학과 졸업

송기자
카메론! 이름이 역사 속 영웅 이름 같아 혹시 뜻은 갖고 있어?

cam
"구부러진코" 라는 뜻을 갖고 있어.
장난이야. cam 이라고 불러주면 돼.
근데 보통 우리는 영어 이름에 뜻을 두진 않아.(웃음)



송기자
교내 식당을 이용한 적이 있을 텐데, 무슨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
읍내에 있는 식당 중 괜찮은 곳 있었어?

cam
피자 정말 맛있더라. 된장국도 맛있었어!
그리고 괴산에 있는 BnB치킨!! 2~3번 밖에 안 가봤지만,
바삭하고 맛있어. 여기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먹으러 가야겠어.

송기자
거기가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나도 가봐야겠다.
우리학교에 맘에 드는 시설은 있어?

cam
학교운동장하고 축구장 시설이 정말 좋더라.
심지어 매점과 화장실도.

송기자
저번에 너희들 장기자랑 때 너 노래 진짜 잘하더라~
가수해도 되겠어.
그래서 말인데 직업으로 교사를 선택한 이유는 뭐야?

cam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놀러오라고 하더라구. 몇 번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다들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고, 여기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서 감동을 받았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한국에 보상을 하는 길을 택했어.

송기자
다음 인터뷰 할 사람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다면?

cam
당신이 여기에 있는 동안 어떻게
당신의 학생들과 어떤 추억을 만들고 싶나요.



송기자
인터뷰에 응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Chris와의 대화

Ohio Denison 대학교
영문학과 졸업생

송기자
크리스! 중원대학교에는 어떤 이유로 오게 된 거야?

chris
연세대학교에서 풀브라이트 지원을 해서 연수를 받았는데,
난 입양아거든. 생모가 음성에 계시다고 해서 만나보고 싶어
이번에 충북에 지원하게 됐어.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봤는데, 정말 작으셔..
내가 한국어를 너무 못하니까 친구가 옆에서 통역해줬는데 한국어를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더라. 얼른 한국어 배워서 엄마랑 자연스럽게 대화 해 보고 싶어. 통역해준 친구 얘기로는 16살 때 나를 낳으셨는데, 그 때 나를 기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 입양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대.

송기자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학교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

chris
응. 농구장에서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신 분이 있는데
이 학교 직원분이셨어. 그분이 고시원 선생님이라고 들었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 이곳 사람들은 정말 친절한거 같아
카페테리아 직원 분들도 나한테 항상 친절히 대해주시고 계속 말을 걸어주시더라고 나보고 잘생겼대.:)

송기자
(하하 이친구개!)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등 만족한 것이 있다면?

chris
태권도, 나한테 정말 좋은 기회였어.
태권도 선생님하고 술도 한잔했는데 멋진 분이었어.
또 있는데 RA(residence assistant)친구 중에 해창 친구는
우리 ETA애들이 농구도 하게 도와줬고, 정말 괜찮은 친구야.
이번 해에 해창이 보러 괴산에 갈 거야.

송기자
이번 학기에 꼭 놀러와 그러면ㅋㅋ
다음은 Cam의 질문이야. "당신이 여기에 있는 동안 학생들과 어떤 추억을 만들고 싶나요?"

chris
학생들에게 미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자신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삶과 생각들을 알려주고 싶고, 지식과 상식들을 넓히는데 이바지 하고 싶어. 그건 선생님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해.



송기자
멋진 생각을 갖고 있네.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랄게 Good lu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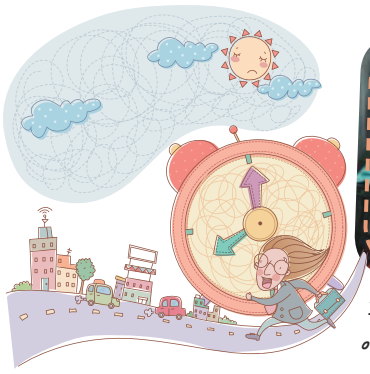
잉글리시 카페, 이리콤!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소통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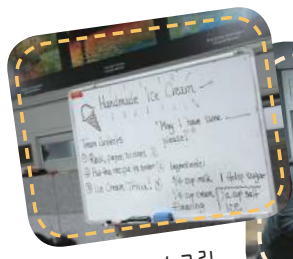


하하ㅎㅎ하하하하ㅎ!! 하하하ㅎㅎㅎㅎ!
저녁 8시... 수업이 끝나고 어두워진 학교 캠퍼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만 되면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린다...





휴 자리 없을 뻔 했네.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끝자리에 살짝 앉아 볼까요?



오늘은 아이스크림 만드는 날!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아이스크림 만들며 놀고, 내가 만든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일석 3조 개이득!



오늘은 보드게임 하는 날.
아 잠깐만요, 카드 섞고 있어요.
카드게임도 하고!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할로윈 파티를 즐기려면
역시 잉글리시카페로
가야지! 내 손을 잡게.



할로윈 파티에 코스튬이 빠질 수 없지!
제대로 된 할로윈 코스튬 완성!
여러분의 할로윈을 위해서 매튜(교수)가 기꺼이 망가지셨습니다.



교양학부교수
Sammi Marcaux

목요일마다 파티장이 되는 잉글리시 카페! 우리 중원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이런 빅 재미를 선사해 준 파티의 개최자에게 물었습니다!

Q. 파티를 열게 된 취지가 무엇인가요?

A. 영어에 좀더 친숙해 지도록 파티를 열어 자연스럽게 영어 쓸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또 학생들도 즐거워 하구요. 영어 어렵지 않아요. 카페에 자주 방문해 주세요.



원어민

Kathleen 그녀를 알고 싶다

중원대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현재 ETA(영어 교사 인턴쉽 프로그램)의 마지막이자 세 번째 연수 과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중원대를 선택한 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에요. 첫 번째, 대학생 친구들하고 제 업무를 즐기고 싶은 마음에 선택했어요. 대학은 학생들 자신들의 재능과 관심사를 갈고닦고, 미래에 대한 많은 가능성들을 탐구하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학생들을 도와주고 저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저는 정말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이미 중원대학교에 들어오기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매해 여름마다 중원대학교는 풀브라이트를 위해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을 6주씩 마련해주었는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중원대 학생들과 대화하고 캠퍼스에서 보낸 시간들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죠.

마지막으로는 이전 ETA연수과정을 모두 마친 앤드리아, 새미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제가 여기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죠.

한국에 지내면서 힘들었던 적은?

한국에 있는 동안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았지만 몇 가지 힘들었던 점들을 말하자면, 모두가 공감할만한 고향 밖에서의 삶입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고, 가끔씩 외롭다고 느꼈어요.

미국에서 먹던 음식들이 생각날 때도 있었고, 특히 엄마가 만들어준 미트 로프, 으깬감자, 녹두콩 요리가 너무 먹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입양된 한국인이라서 한국말을 정말 못합니다. 떠나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었고, 한국에서도 갈피를 못 잡았지만 요즘은 매일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원대의 메리트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작 3개월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멋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이 성공적이고 가치있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늘 무언가를 준비하는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생들도 정말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방법이라든지 자신만의 노하우는?

모든 강의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함께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눈치 게임 같은 것도 하고,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한답니다.

여기서 지내는데 만족하는지?

네, 만족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앞으로도 중원대학교에서 좋은 경험들을 하리라고 소망하고 있답니다.

송예지 기자 lilysong@jwu.ac.kr

제12호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아! 츄!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 국내 기업 취업에 성공한 외국인 유학생 아츄 –



몇 년 전, 카메룬에서 온 멋지고 까만 피부의 친구 '아츄'를 다들 기억하시나요? 컴퓨터시스템공학과 12학번으로 입학한 아츄가 어느덧 졸업하여 국내 기업에 당당하게 취직을 하였습니다. 낯선 이국땅에서 멋지게 자신의 꿈을 펼친 아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송예지 기자 lilysong@jwu.ac.kr

1. 머나먼 이국땅에서 자랑스럽게 취업에 성공하셨는데 느낀 점 있으신가요?

카메룬에 있었을 당시에도 IT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IT 강국인 한국에 유학을 와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한국에서 취업까지 하게 되어 기분이 묘하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2. 근무하는 회사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발급기를 제조 생산하는 주식회사 '본시스'에 기술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3. 입사동기와 어떤 과정을 거쳐 합격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에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했고 저 또한 한국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던 중 마침 저희 과 백승훈 교수님께서 지금의 회사를 추천해주셨습니다. 그 분께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분 덕에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수월하게 포트폴리오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죠.

4. 외국인으로서 회사생활에서 힘든 점이 있다면?

크게 없습니다.(웃음)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겪는 언어적 장벽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고 이겨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의 관련된 문화를 꼭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한 회사 동료와 한국어로 소통하는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전공수업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나요?

전공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였기에 일을 하면서 컴퓨터 시스템공학과 지식이 유용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 분야 외에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6.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비중을 둔 부분과 당락을 좌우한 요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한국말을 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한국문화 또한 충분히 이해하면 좋겠죠.

7. 회사나 학교에 외국인 취업 생으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입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직은 회사에 바라는 점은 없습니다. 학교 다녔을때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도 많은 행사가 있지만 교내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행사 마련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토론, 할로윈 파티와 비슷한 프로그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 근로나 아르바이트 제도 등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 취업을 준비 중인 후배 (외국인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우선 포트폴리오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일차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문서이니까요. 두 번째는 한국말을 어느 정도 익히고 나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열정이 넘친다 한들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업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문화를 많이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미리 알고 가셔야 예의를 중요시하는 한국 회사에서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면접 시에 좋은 인상을 주어 외국인으로서 충분히 회사에서 고용해도 괜찮은 인재로 보인답니다.

취업 뭣이중헌디?

대학교 1학년부터 하게 되는 취업고민. '대기업이 중요할까 아니면 내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중요할까..' 고민 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다른 나라 청년들은 어떤 취업 분위기에서 주로 어느 부분을 선호하는지 송예지 기자가 교내 외국인들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덴마크



컴퓨터 시스템공학과 14학번 요한

덴마크는 근로조건이 굉장히 잘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어떤 근로조건이 있나요?

맞아요. 우리는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로시간은 법으로 일주일에 37시간 동안만 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근무 해야 하고, 최저임금은 한국 돈으로 약 2만원입니다. 대학교에서 석사 공부를 한다면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질문) 덴마크 청년들의 기본적인 취업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저희도 영어를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덴마크에서는 덴마크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자유롭게 구사하기에 면접 시에 항상 영어로도 물어보니 이에 대해 준비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법무법학과 14학번 웬반휜

베트남은 언제부터 주로 취업을 하나요? 또한 어느 직업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인가요?

보통 대학 졸업 후, 23살부터 합니다. 인기 있는 직업은 공무원 등 공직이 가장 인기가 많고 그다음은 외국 기업이 인기가 많습니다.

공통질문) 베트남 청년들의 기본적인 취업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네. 있습니다. 베트남도 한국과 같이 취업할 때, 토익이나 어학 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국가고시가 주어지며, 영어는 필수입니다.

중국



한국어 학과 14학번 왕금국

중국 청년들은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 직장 네임벨류, 미래 지향성)

중국도 대기업이 정말 중요해요. 전반적으로 돈을 중요시 생각하며, 자격요건이 부족한 친구들은 그에 맞추어 가려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사실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공통질문) 중국 청년들의 기본적인 취업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스펙이 필요하듯이 중국도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같은 곳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 스펙은 영어 4급, 컴퓨터 2급 등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중국 내 수많은 지방언어가 있어,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표준어가 지정되었기에 그에 대한 표준어 자격증 또한 필수로 요구됩니다.



조모임 하다 화나서 알려주는 Google Tip

과제로 의논해야 할 것이 있어 만나자고 해도 안모이고, 의견을 물어봐도 묵묵부답이고, 결국은 내가 다 하는 팀플레이 과제는 이제 그만!! 시간제약이 없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구글의 유용한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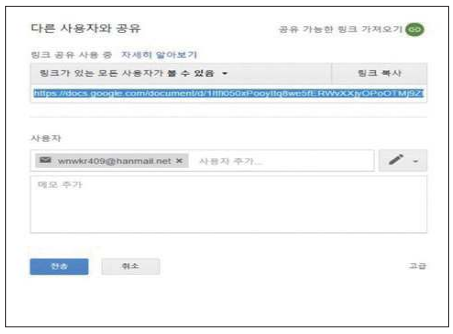
Google 문서도구 Google 시트 Google 슬라이드

문서도구와 슬라이드, 시트를 이용해 문서를 만들었다면 이제 공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는 어떻게 하지?

공유 방법 !

1. 작업 전 구글에서 제공하는 문서로 파일을 생성합니다.

2. 오른쪽 상단에 공유하기를 누른 후, 공유할 대상에게 메일을 보내면 공유 완료!



※ 문서를 만들 때는 꼭 구글에서 만들어야 하고, 공유하는 사람 계정이 구글이 아닐 경우 댓글달기가 불가능합니다.

부가적인 기능 하나 더~!
공유를 하면 현재 누가 문서를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수정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다면? 구글의 히스토리 기능!

각 파일의 수정 이력을 저장하여 과거 문서 상태와 현재 문서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문서에 들어가서 파일->업데이트기록 보기를 누르면 현재까지 변경된 이력을 보여줍니다. 문서편집을 시작하면 실시간으로 갱신이 되며, 수정된 부분은 초록색으로 강조되고,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이 그어져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기능을 이용하면 동시 수정이 가능하고 수정이력을 볼 수 있어 문서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과 유용한 검색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문서도구를 비롯한 문서작성 도구들은 구글 계정과 크롬이 있다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구글 서버에 저장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더 이상 과제 하실 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과제를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린 팀이잖아요!)<

최병근 기자 root@jwu.ac.kr

+ 과제를 위해 검색해야 할 때 구글에서 쓰이는 유용한 기호!

"큰 따옴표" 해당 단어/문장이 입력한 순서대로 검색이 됩니다.
Ex)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라고 검색을 하면 이 문장 순서 그대로 포함한 글만 검색 합니다.

하이폰 이 단어가 포함된 페이지는 검색결과에서 제외됩니다.
주의 : 하이폰 앞에 공백이 있어야 합니다.
Ex) 강아지-고양이를 검색하면 고양이를 제외한 강아지 검색결과를 보여줍니다.

특정 웹 사이트 검색(site:)
한 특정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검색을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종류의 사이트 모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 대한민국 site:gov는 정부 도메인에 한해서 대한민국을 검색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define 검색어의 사전적 정의를 보여줍니다.
Ex) define:사랑 이성(異性)의 상대에게 성적(性的)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 드물게 좋아하는 상대를 가리키기도 함.

별표* 검색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문장 사이에 별표(*)를 입력하면 빈자리를 채운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Ex) 아이슈타인* 이론을 검색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같이 보여줍니다.

마침표 두 개..숫자(+단위) 숫자와 숫자 사이에 마침표 두 개를 넣으면 숫자 범위 내의 검색결과를 보여줍니다.
Ex) 2012..2014로 검색하면 2012, 2013, 2014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검색 결과만 표시됩니다.

or 두 단어 사이에 입력하면 두 단어 중 하나라도 있는 검색결과를 보여줍니다.
Ex) 강아지or고양이 강아지가 포함된 검색 결과와 고양이가 포함된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filetype:tag
찾고자 하는 것과 filetype:tag를 추가하면 해당 파일의 결과들이 검색됩니다.
Ex) 경제 filetype:pdf를 검색하면 경제에 관한.pdf파일들만 검색됩니다.

제12호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괴산 愛 카페



친구들과 밥 먹고 커피 한 잔 하고 싶은데 어딜 가야 할지 고민이라고요? 연인과 함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싶으신가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괴산의 카페 별 음료추천! 맛은 물론 비주얼과 분위기까지 책임지는 카페들을 만나보시죠!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1. CAFE YOM

MENU 바나나초코봉봉 ₩5,500
딸기퐁당YOM ₩5,500

위치 ☎010-3527-7646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01-2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부터 비주얼 대박 음료까지! 여심저격 카페 'CAFE YOM'입니다. 카페 여기저기에 사장님의 '금손' 기운 팍팍! 사진 속 음료는 바나나와 초코 아이스크림, 초코과자가 얹어진 '바나나초코봉봉'과 달콤한 요거트에 딸기가 올라간 '딸기퐁당YOM'입니다. 달콤한 분위기와 맛에 취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 달콤 카페

MENU 자몽에이드 ₩5,500
케모마일티 ₩5,000

위치 ☎010-4364-6400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61-55



달콤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자몽에이드와 허브티입니다. 이 카페의 자몽에이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카페 사장님의 수제 자몽청으로 만들어서 알갱이가 살아 움직이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허브티 역시 레몬그라스, 라벤다, 케모마일, 페퍼민트, 자스민, 로즈마리 등 6가지 종류의 허브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3. 디에떼 카페

MENU 아이스 아메리카노 ₩3,100
블루베리요거트 스무디 ₩4,500
젤라또 ₩2,500

위치 ☎043-832-4959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35-8



디에떼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생블루베리를 갈아 넣은 달콤한 블루베리요거트 스무디, 부드럽고 달콤한 젤라또입니다. 음료와 젤라또도 좋지만 많은 친구들과 오기 좋은 넓은 실내와 2층에서 바라보는 뷰가 환상적입니다. 창가 자리에 앉는 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카페 테라스 부럽지 않습니다. 사실 좀 부럽지만 이 정도로 만족합시다.

4. Tous les jours

위치 ☎043-832-0432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61-7



괴산에 있는 카페 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만날 수 있는 뚜레쥬르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빵과 쿠키부터 일반 카페에서는 볼 수 없는 통케이크까지!! 괜히 내숭떤다고 간에 기별도 안가는 조각 케이크 먹지 말고 뚜레쥬르에서 통크게 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 뚜레쥬르는 다른 카페와 달리 쿠폰스템프를 8개만 채워도 무료 커피음료를 드립니다. Tous les jours 매일매일 갑시다!

이외에도 이디야, 뚜레쥬르, 제이스반 등 많은 카페가 있습니다. 각각의 카페마다 차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머니가 가볍다면 저렴한 곳을 연인과 함께라면 분위기 좋은 곳을 골라보세요. 주머니가 가볍다면 저렴한 곳을, 연인과 함께라면 분위기 좋은 곳을 골라 가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카페가 마음에 들어서 매일매일 옮겨 다니고 싶군요!

어여쁜 우리말

나랏말싸미 듕귁에달아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그 편리함과 고마움에 대한 마음은 잊을 때가 더 많은 소중한 우리의 글자 한글! 하지만 요즈음 각종 SNS 등 인터넷에서는 기괴한 신조어가 생기며 한글의 본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운 본모습을 되찾기 위해 의미와 어감이 예쁜 순우리말을 예문과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 **시나브로** -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하늘 높은 가을날 교정을 걷다보니 낙엽들이 시나브로 내발을 덮는다.

▪ **온새미로** - 가르거나 쪼개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우리학교 학식에 큰 생선이 온새미로 올라오니 먹음직스럽다.

▪ **안다미로** -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어머니의 사랑이 안다미로 쌓인 밥 한 그릇에 묻어나온다.

▪ **사랑옵다** - 생김새나 행동이 사랑을 느낄 정도로 귀엽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올려다보는 아이가 정말 사랑옵구나.

▪ **달보드레** - 달달하고 부드러운
-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하니 쌀쌀한 가을밤 캠퍼스 벤치에 앉아 마시는 차갑게 식은 커피 한 잔도 달보드레하네요.
- 이 빵 진짜 달보드레하다.

▪ **너나들이** - 서로 '너', '나' 하고 부르며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
처음엔 어색했던 동기들과 이제는 너나들이로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 **미쁘다** - 믿음성이 있다. 믿을만하다.
조별과제 조장은 미쁘고 책임감 있는 오빠가 해주세요.



스웨거 슈퍼비&면도 중원에 떴다!



지난 10월 12일 우리대학 가을축제에 힙합 대세 면도와 슈퍼비가 떴다!
축제가 열리기 전부터 많은 학생들이 기대한 만큼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며 뜨거웠던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무대의 여운이 남아있던 '김치힐갱' 크루의 면도(본명 임현도, 이하 면)와 슈퍼비(본명 김훈기, 이하 슈)를 JR이 만나봤습니다.

JR **'Show Me The Money 5'의 영향으로 요즘 대세이긴 하지만 혹시 본인들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 부탁합니다.**

면: 반갑습니다. 저희는 '김치힐갱' 크루에 속해있는 면도, 슈퍼비라고 합니다. 얼마 전 'Show Me The Money 5'에 출연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덕에 이렇게 중원대학교 축제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JR **저도 정말 팬입니다. '김치힐갱'은 어떤 크루인가요?**

슈: '김치힐갱'이라는 크루는 제가 만들었어요. 음악을 좋아하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음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각자 역할도 나뉘어 있어요. 일단 제가 대장이에요. 면도는 제 어깨 주물러주고 키득키득이라는 친구는 밥 차려주고 맥랩씨는 심부름꾼이에요. 몇 명 더 있는데 다 그냥 잔심부름해요. (웃음)

JR **학교의 분위기나 학생들의 분위기를 포함한 중원대학교의 첫 느낌은 어땠나요?**

면: 처음엔 그냥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예상 외로 학교도 되게 크고 학생들도 많아서 놀랐어요. 건물도 전부 대리석으로 되어있는 것도 완전 웅장하고 멋있어요. 학생들의 에너지도 정말 좋습니다!

JR **최근 대학 축제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오늘 공연이 다른 대학 공연과 다른 점이 있었나요?**

슈: 학생들이 정말 잘 놀아요. 정말 미친 듯이 호응해줘서 저희도 정신 놓고 공연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관객석과 무대 사이에 있던 펜스 때문에 거리감이 조금 느껴졌어요. 저희가 가까이 내려가면 뒤에 서 있는 학생들이 잘 안 보일까봐 아쉬웠어요.

JR **본인들은 실력파 래퍼와 비주얼 래퍼 중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나요?**

슈: 저희는 이미 비주얼 래퍼로 유명하죠. 누가 봐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쇼미더머니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웃음)

JR **두 분의 향후 앨범계획은?**

슈: 지금도 꾸준히 곡을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곡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물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지 않겠어요? 면도는 슬럼프라서 올해는 앨범을 안 낼 것 같아요. (웃음)

면: 저도 앨범 준비하고 있어요. 슈퍼비가 저를 너무 의식해요. (웃음)

JR **마지막으로 중원대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면: 정말 즐거운 공연이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학생들에게 힘을 얻어가는 느낌이에요. 학생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정말 부러워요.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에너지라면 분명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응원할게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연예인이라기보다는 동네 친한 형 같은 친근한 느낌의 두 분 덕분에 인터뷰 내내 흥미로웠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두 사람이지만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연과 활동을 통해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중원 페스티발 JWU Festival


선서!


저희 인사대가 다시 받아가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축제를 즐기세요!


쿠오오옥~!! 승리의 포효~!!


우승의 기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내 앞길을 막지마!!!!


으샤라 으샤!!


워~


괴산군 어르신들의 축하공연


에헤라 디야~ 응원은 자진모리 장단으로


찹쌀떡~ 메밀묵~ 건강은 우리가!!


중원대 미녀삼총사


슈퍼비를 영접하는 광신도들


스테이끼 드세요!


아이 햅어 펜~


숨막히는 비주얼 '나인뮤지스A'


내가 우리학교 댄싱퀸~ 횬아


우리도 투표권을 달라!


여자보다 더 이쁘당!!

